

복선전철 서원주~평창 구간 연말 착공

【원주】을 연말 착공예정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원주 구간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미착공 구간인 서원주~횡성~평창 구간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올 연말 안에 예정대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구간에 만중역을 비롯해 횡성읍생운리와 둔내면 자포곡리에 각

원주~강릉 일부구간 설계 변경 마무리 단계

철도시설공단 내달 주민설명회·시공사 선정

각 역사를 신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철도시설공단은 9월 중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및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올 연말 안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터널로 예정돼 있던 노선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설계 변경 과정으로 인해 지

난 7월 착공한 6~10공구보다 늦게 공사가 시작하게 됐다”며 “2017년 말 개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1~5공구에 해당하는 서원주~평창 구간은 전체 56.6km로 일부 구간에 대한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착공이 미뤄져 왔다.

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

황영철 의원 첫 세비로 장학금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 1000만원 전달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국회의원이 당선후 첫 세비를 모아 횡성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에 나서 귀감이 되고 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을 찾아 지난 7월과 8월 두달간의 세비를 모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특히 지난 6월 국회가 개원되지 않은 만큼 이번 7,8월 세비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받은 첫 세비여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지난 6월

세비의 경우 국회 개원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새누리당 동료의원 146명과 함께 전역 국군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기부했다.

또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초선 당시에도 첫 세비로 홍천과 횡성지역에 송아지를 기부해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농가에 작은 희망을 전달하기도 했다.

황영철 의원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을 발전시키기는 일”이라며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국회의원과 부인 심진숙씨는 19일 오후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을 방문, 조창진 재단 이사장과 최현식 운영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7,8월 국회의원 세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비록 작지만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힘 이 되고 교육개선 분위기 확산에
횡성/정태욱 tae92@kado.net